한성 손재한 장학회 노벨 영수재 장학생 제12기 면접 후기

판교고 이현승

**면접시간과 장소**

1차 합격 발표 이후 2일간 총 20개조의 대그룹으로 나뉘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도곡역)에서 2차 면접을 실시한다.

ㅇ 25년은 토요일/일요일 진행

ㅇ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뉘어 진행

ㅇ 1차 합격자 총 272명(자연계열 240명, 인문계열 32명), 인문계열은 첫날 면접 모두 진행함

ㅇ 최종합격: 자연계열 155명, 인문계열 25명

2차 면접은 **교과영재면접, 영어면접, 인성면접**으로 진행된다. 오전 조는 9시 25분에 입실하여 오후 1시 25분경 퇴실했고, 오후 조는 12시 35분 입실하여 오후 5시 25분경 퇴실했다.

2차 면접은 1일 대그룹 4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조는 12명이고 소그룹으로 3명씩 4그룹으로 나뉜다. 각 조당 자연 3그룹, 인문 1그룹으로 구성된다(첫날의 경우/둘째날은 자연계열만 진행).

ㅇ 2/8 오전면접: 1조-4조

ㅇ 2/8 오후면접: 5조-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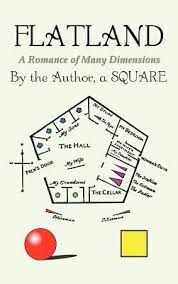
ㅇ 2/9 오전면접:11조-14조

ㅇ 2/9 오후면접: 15조-20조

**교과영재면접**

4조 모두 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자연계와 인문계는 주제가 다르다. 1그룹이 동시에 4개의 반에 들어가서 문제를 받는다. 문제는 한 종이에 정리되어 있고 본문 1개와 소문제 3개로 나뉜다. 종이를 받고 동시에 시작해 **15분 동안 답안지에 답안을 적는다**. 답안지는 A4용지 1장이고 뒷장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내가 속한 4조의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본문:** Flatland 세계의 개념을 설명함. Flatland는 우리가 사는 3차원과 다른 2차원의 세계이다. 2차원의 세계에서 모든 물체는 직선으로 보일 것이다. 직선에서 빛이 나온다.

**[1-1]:** 위 세상에서 2차원의 세계는 모든 물체가 직선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1-2]:** 위 세상과 3차원 세상의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차이는 무엇인지?

**[1-3]:** [1-2]를 참고해서 위 세상에 지능을 가진 생물체가 탄생할 수 있을지?

(인문계는 경제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

15분이 지나면 조교가 답안지를 걷고 옆 반으로 이동해 면접을 본다. **면접은 20~25분 정도**로 기억한다. 면접은 2:3(면접관 2명, 학생 3명)으로 진행된다. 답안지는 면접관(교수들)에게 제출하고 다시 보지 못한다. 면접관은 각 3개의 질문을 다시 물어보면서 어느 학생이 먼저 할지 묻는다. 학생은 먼저 의견을 제시할 순서를 정한다. 한 학생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반박을 한다. 반박은 자유롭게 진행된다.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할 수도 있다. 교수들이 반박을 할 때도 있고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도 있다. 학생의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기도 한다. 비판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다. “쓰쓰씁”부터 “비논리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것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비판적으로 반응한다고 당황하지 말고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이해하고 자신있게 재반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교과영재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음 사항을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

ㅇ 아무말이나 하면 탈락할 수도 있다.

ㅇ 교수들이나 친구들이 반박하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ㅇ 정답을 맞추는 것 보다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자신있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실제로 나도 처음에는 틀린 대답을 작성했는데, 친구들의 반박을 받고 면접 과정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점을 깨닫고 의견을 정정했다. 작성한 답이 틀렸다고 큰 타격은 없는 것 같다. 내 옆 친구는 교수들의 질문에 질문 요지에 어긋나는 아무말을 했고 결국 탈락했다.)

**영어면접**

영어 면접 때는 교과영재면접을 본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과 섞여서 볼 수 있다. 이 면접은 **5~8명의 학생이 한 반에 들어가서 5분 동안 준비**한다. 영어면접은 답안지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답안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준비시간 5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미리 다 말할 것을 생각하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영어면접은 **한 학생 당 1분씩 보고** 남은 시간동안은 자유롭게 다른 학생에게 질문하고 대답한다. 1분이 넘으면 짤리고 1분이 부족하면 추가 질문을 받는다. 영어 면접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What was your experience that led to you studying your field?

모든 조의 질문들이 모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 같았다. 영어면접의 면접관도 2명이다. 1분 동안 대답을 하다보면 실제로 시간이 남을 수도 있는데 면접관의 추가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답하고 나면 시간이 남는데 이때 친구들에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관들이 친구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강조했다. 즉, 추가 질문을 다른 친구에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영어 면접을 보면 일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영어 면접을 잘 못본다. 실제 영어면접 때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5분이나 한 학생이 통과하기도 했다. 즉, 교과영재면접에 비해 영어면접은 비중이 덜한 것 같다. 따라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성면접**

면접관들은 “인성면접은 앞서 진행한 2개의 면접을 잊고 마무리하는 면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면접 형식과 질문들을 보면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다. 3명의 면접관들이 12명(즉, 1조 전체)을 면접한다. 이때, 물어본 질문은 다음과 같다.

ㅇ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ㅇ 학생의 이름의 한자 뜻은 무엇인가?

대답 순서도 자유로웠고 대답 시간도 자유로웠다. 면접관들이 조용한 학생들을 특정하여 직접 질문할 때도 있었다. 인성면접도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후기 작성**

면접이 모두 끝나면 새로운 방으로 가서 간식을 나누어주고 후기를 작성하라고 한다. 후기를 작성하는 의도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가 면접을 보기 위해 한성 노벨장학생 면접 후기를 열심히 찾아 봤는데 찾지 못한 것을 보면 실제로 후배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성실성을 보고 인성면접이 짧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결론**

교과영재면접은 실제로 영재성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답이 틀려도 통과하는 것을 보면 영재성이라기 보다는 창의성이나 논리력을 보는 것 같다. 영어면접과 인성면접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2차면접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자연계 친구는 평소 수과학 분야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인문계는 사회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다. 네이버에 한민고 학생이 작성한 후기가 있음).